

韓國人蔘煙草研究所 崔光泰, 金鏡泰, 李鍾結*, 睦成均

人蔘類別 즉 水蔘, 紅蔘, 白蔘, 太極蔘 과 人蔘製品에 대한 品質 評定方法에 대한 問題點 및 改善方向을 살펴 보았다.

人蔘類의 評定基準이 組織의 緻密度, 根體形, 色澤 等으로 되어 있으나 評定方法이 肉眼 鑑定이기 때문에 評極의 客觀性이 결여될 위험도 內在해 있다. 根體形을 人蔘의 藥理 效能面에서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人蔘製品에는 規定이상의 사포닌 含量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포닌 이외에 人蔘이 가지고 있는 파낙신 등의 成分도 필요하리라 본다.

人蔘의 사포닌은 소련의 브레크만(1957) 박사가 人蔘의 有效成分이 「사포닌」일 것이라고 発表하므로써 사포닌에 대한 集中的인 研究가 이루어 지기 始作되어 現在 高麗人蔘中에서 14種의 Ginsenoside가 発表되어 있다.

高麗人蔘 類似種에서도 사포닌이 많이 含有되어 있으나 Ginsenoside의 種類가 高麗人蔘의 것과 다르다. 각 사포닌을 가진 生藥으로는 맥문동, 갈초, 도라지, 사삼 등 여러 生藥들이 있는데 이들 사포닌은 高麗人蔘의 사포닌과 構造上의 差異點이 顯著하다. 따라서 여러 生藥中에 사포닌이 많이 含有되어 있기 때문에 人蔘製品에 粗사포닌 含量表示 보다는 高麗人蔘만이 가지고 있는 特定 Ginsenoside 含量表示나 파낙신 含量表示가 좋을 것이다.